

## 카메룬의 대선 결과와 전망

### 1. 카메룬 대선 결과

#### □ 폴 비야 현 대통령 재선

- 1992년에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4번째로 실시되는 카메룬 대통령 선거가 2011년 10월 9일에 2004년 이후 7년 만에 24,591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되었음.
-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(Elections Cameroon: ELECAM)에 따르면 총 1,996만 명의 인구 중 752만 명(국내 750만 명, 해외 2만 명<sup>1)</sup>)이 유권자로 등록하였고, 총 투표자는 496만 명으로 투표율은 65.8%를 기록하였음.
  - 이 투표율은 대선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로,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못한 유효 유권자 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됨.<sup>2)</sup>
- 10월 21일에 카메룬 대법원(헌법위원회 대행)은 국무총리, 국회의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외교단,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선 투표결과를 발표하고, 현 폴 비야 대통령을 당선자로 확정 공표하였음.<sup>3)</sup>

1) 2011년 8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음.

2) 2004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2.2%를 기록하였음.

3) 카메룬에서는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실시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이 최종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확정 발표해야 함.

< 표 1 >

2011년 카메룬 대선 결과

후 보	정 당	득표수	득표율
폴 비야 (Paul Biya)	카메룬국민민주운동 (Cameroon People's Democratic Movement)	3,772,527	77.99%
존 프루 엔디 (John Fru Ndi)	사회민주전선 (Social Democratic Front)	518,175	10.71%
가가 하만 아지 (Garga Haman Adji)	민주개발동맹 (Alliance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)	155,348	3.21%
아다모우 엔담 엔조야 (Adamou Ndam Njoya)	카메룬민주연합 (Cameroon Democratic Union)	83,860	1.73%
폴 아야 아비네 (Paul Ayah Abiné)	국민행동당 (Peoples Action Party)	61,158	1.26%
기타 18명	기타 정당	246,181	5.09%
무효 투표		2.30%	2.30%
합 계		4,961,434	100.0%

자료: EIU, African Elections Database.

- 29년간 장기 집권해 온 폴 비야(Paul Biya) 현 대통령이 존 프루 엔디(John Fru Ndi) 후보를 70%에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재임에 성공하였음.

□ 야권 세력 약화

- 이번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는 총 23명으로 2004년 대선 당시(16명) 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, 야권 후보의 득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.
- 당초 52명의 후보자가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였으나, ELECAM의 심사 결과 후보자 서명의 진위 여부, 납세신고서 누락, 공탁금 미기탁 등의 사유로 29명의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음.
- 폴 비야 대통령의 득표율이 77.99%로 2004년 대선보다 약 7%포인트 상승하였으나, 존 프루 엔디 후보의 득표율은 10.71%로 2004년보다 약 7%포인트 하락하는 등 야권 후보의 득표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.

< 표 2 >

카메룬 대선 득표율 비교

후 보	정 당	2004년	2011년
폴 비야 (Paul Biya)	카메룬국민민주운동 (Cameroon People's Democratic Movement)	70.92%	77.99%
존 프루 엔디 (John Fru Ndi)	사회민주전선 (Social Democratic FrontF)	17.40%	10.71%
가가 하만 아지 (Garga Haman Adji)	민주개발동맹 (Alliance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)	3.74%	3.21%
아다모우 엔담 엔조야 (Adamou Ndam Njoya)	카메룬민주연합 (Cameroon Democratic Union)	4.48%	1.73%
폴 아야 아비네 (Paul Ayah Abiné)	국민행동당 (Peoples Action Party)	-	1.26%

자료: EIU.

- 존 프루 엔디 후보는 1992년 대선에서 36.0%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폴 비야 대통령(40.0%)에 석패하기도 하였으나,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야권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득표율이 현격히 하락하고 있음.

## 2. 카메룬의 정치 역사와 대선 실시 배경

### 가. 정치 역사

#### □ 독립 이후 아마두 아히조 대통령 장기 집권

- 1960년에 프랑스령 카메룬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독립운동가 아마두 아히조(Ahmadou Ahidjo)를 초대 대통령으로 한 카메룬공화국(Republic of Cameroon)을 수립하였고, 1961년에 영국령 카메룬의 남부 지역과 통합하여 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아마두 아히조를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였음.<sup>4)</sup>

4) 1961년에 UN 후원 하에 실시된 영국령 카메룬의 국민투표에서 북부지역은 나이지리아에 합류하고, 남부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카메룬공화국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음.

- 1972년에 카메룬은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을 폐지하고 단일국가 체제를 수립하였으며, 단일정당제의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1982년까지 22년간 아마두 아히조의 통치가 지속되었음.
- 아마두 아히조 전 대통령은 유일한 정당이었던 카메룬국민연맹<sup>5)</sup>(Cameroon National Union: CNU)의 당대표직을 겸임하였음.

## □ 폴 비야 대통령의 통치 1기

- 1982년 아마두 아히조 대통령이 하야하고, 당시 총리였던 폴 비야가 카메룬국민연맹의 당대표직과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음.<sup>6)</sup>
- 폴 비야 대통령은 1983년에 아마두 아히조 전 대통령 세력의 쿠데타를, 1984년에 북부 이슬람 군 장교들이 시도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하였고, 국방부를 대통령실 직속기관으로 흡수하여 군부를 장악하면서 안정적 권력 기반을 확보하였음.
- 폴 비야 대통령은 1984년과 1988년에 대통령에 재취임하였으며, 공공 분야 개혁 등의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음.

## □ 폴 비야 대통령의 통치 2기: 다당제 및 대통령 직선제 실시

- 1990년에 변호사, 교사, 학생들의 주도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카메룬은 다당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으며, 1992년에 실시된 최초의 대통령 직선에서 폴 비야가 당선되었음.
- 동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이 격렬히 항의한 바 있음. 공식적으로는 존 프루 엔디 후보가 4%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폴 비야를 앞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
5) 카메룬국민연맹(Cameroon National Union)은 1985년에 카메룬국민민주운동(Cameroon People's Democratic Movement)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음.

6) 당시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권력승계자의 지위에 있었음.

- 1997년 대선에서 폴 비야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나, 독립된 기관이 선거를 관장토록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거부함에 따라 3개 주요 야당이 불참한 채 진행되었음.
- 2004년 대선에서도 폴 비야 대통령은 70.92%의 지지율(유효 투표의 75%)로 연임에 성공하였음.

## 나. 대선 실시 배경

### □ 헌법 개정을 통한 재선 도전 및 저항

- 2008년 2월에 국제 유가 및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와 헌법상 대통령 연임제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여 다수 도시(Yaounde, Douala 등)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음.
  - 시위는 군경의 투입으로 일단락되었으나, 국제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-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2008년 4월에 국회가 대통령 연임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퇴임 후까지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폴 비야 대통령의 2011년 대선 도전이 가능하게 되었음.

### □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 출범

- 야당의 계속된 요구와 부정선거 논란 지속으로 2006년에 국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법을 입법하였음.
- 2008년 12월에 폴 비야 대통령이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12명을 임명하였으며, 동 위원들이 2009년 1월 말에 취임함으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행정부에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음.

- 이전에는 내무부(Ministry of Territorial Administration and Decentralization) 산하 국가선거감시단(ONEL)이 선거를 관리하였으나, 행정부 하부조직인 ONEL의 지위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왔음.

## □ 카메룬국민민주운동 당대표 재임 및 대선 출마 선언

- 2011년 9월에 개최된 카메룬국민민주운동 전당대회에서 폴 비야 대통령이 1,135표 중 1,134표를 득표하여 당대표로 재선출되면서 5년 임기를 시작하였으며, 카메룬국민민주운동은 현 대통령이자 당 대표인 폴 비야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음을 밝힘.

## 3. 카메룬 대선의 의의 및 전망

### □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의 최초 대통령 선거

- 이번 선거는 카메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시행된 최초의 선거로서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, 헌정 사상 최초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기관에서 선거 전반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- 제1야당인 사회민주전선은 2009년 9월에 12명의 위원 중 9명이 전직 정부·여당 출신 인사로 구성되어 정치적 중립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원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음.
- 선거 참관단 및 미국,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번 선거가 절차상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,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.

### □ 부정부패 만연

-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인명부 누락, 복수 투표, 투표용지 미배달로 인한 선거 불참 등 다수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고질적인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었음.

- 야당 세력은 부정행위 적발을 근거로 대법원에 선거 일부 또는 전부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기각되었음.
- 또한 투표소 및 준비 부족 등으로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, 투표 시작 시간까지 투표소를 열지 않거나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선거 운영 및 관리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음.
-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촛불과 휴대폰 불빛, 오토바이 전조등이 동원되기도 하였음.

## □ 안정적 국정운영이 전망되나 후계 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작용

- 2011년 11월 3일에 폴 비야 대통령은 7년의 임기를 시작하였고 정치, 경제, 사회, 외교 분야의 주요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하였음.
- 폴 비야 대통령은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80%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, 집권 여당의 견제세력이 약화되거나 미미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그러나 올해 78세인 폴 비야 대통령의 후계 문제가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조사역 이현정(☎02-3779-5724)

E-mail : [lhj016@koreaexim.go.kr](mailto:lhj016@koreaexim.go.kr)